

주요개념 : 간호윤리, 타자, 신체, 감수성, 책임, 타자

간호에서의 감성과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 레비나스(E. Levinas)의 윤리에 기초하여

공 병 혜*

I. 서 론

이 글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과 그 특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간호윤리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통해 어떻게 이론적인 토대를 획득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간호윤리에서 우선 바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간호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추상적 개념에 의해 보편적으로 정의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바로 항상 '상처받을 가능성'(vulnerability)을 지닌 결핍된 존재로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신체(body)를 지닌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성(corporeality)은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일 뿐만이 아니라, 간호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고 표현하여 돌봄을 위한 인간관계를 근원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간호를 필요로 하는 신체성을 지닌 타자(the other)는 특히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얼굴을 통해 강력하게 노출되고, 표현된다. 이러한 타자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돌봄에 대한 요구는 몸의 감성(sensibility)에 호소하며, 이것은 응답에 대한 요청을 함축한다. 얼굴과 얼굴과의 감성적 만남은 근원적으로 간호사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자와의 인격적 윤리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특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에 대한 주의 깊은 응시와 가까이 다가섬, 말하기, 접촉 등은 간호에서의 돌봄이라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에서의 인간의 신체성(corporeality)에 대한 감성적 이해는 간호를 필요로 하

는 인간에 이해의 기반일 뿐만이 아니라, 간호요구를 수용하여 응답하는 윤리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윤리는 바로 인간 신체에 대한 감성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돌봄이라는 윤리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근거 지을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간호윤리의 기초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와 몸의 감성을 통해 열리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몸의 감성에 기초한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가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근거 지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 요청 받는 도덕적 응답과 책임의 윤리가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초 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의 신체성과 간호윤리

나이팅게일 이래로 모든 간호학자는 전인적(holistic) 인간 이해를 통해서 인간간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여기서 간호에서의 전인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 즉 돌봄의 요구를 지닌 인간을 전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에서의 전인적 인간 이해는 우선 인간은 '상처받을 가능성'(vulnerability)을 지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존재라는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Edward, 2001). 여기서 상처받을 가능성이란 타자의 감성에 노출되어서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을 의미한다. 간호에서의 돌봄을 받는 신체는 생활세계에 거주하여 그 세계를 체험하는 인격적 자아의 기초로서의 신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 자아는 신체를 기반으로 하여 신체를 통해서 그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고 신체의 지향적 활동에 의해 세계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느끼며 동시에 타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자이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곤경에 처한 궁핍한 존재로서 인간 삶의 한계적 상황을 드러내는 신체적 존재임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Gröschke, 2002).

따라서 간호에서의 전인적 인간이해의 기초로서의 신체적 자이는 항상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있으며, 자신들의 간호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신체적 현존의 방식으로 드러내며 표현하는 자이다. 여기서 간호의 요구가 드러나고 표현하는 신체는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신과 분리된 기계론적인 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연장으로서의 신체가 아니다. 또한 인간을 생리적인 유기체로 설명한 환원주의적인 신체의 개념도 아니다. 간호에서 전인적 인간간호의 토대로서의 신체는 일종의 대상화될 수 없는 삶의 주체로서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체로서의 신체적 자이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육화된 삶의 의미와 간호요구를 드러내고 표현한다. 즉, 얼굴표정, 제스처, 접촉 등은 신체적 자이들 간의 감성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의 방식이며 동시에 돌봄이라는 윤리적 관계가 형성되는 모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이해는 간호요구를 지닌 인간이해의 기초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타자에 대한 돌봄이라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간호윤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Schnell, 2002).

그렇다면 인간의 신체성에 기초한 간호에서 윤리적 차원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에 대한 주의 깊은 응시, 가까이 다가섬, 신체적 접촉,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저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신체적 감응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간호의 행위 영역에서 환자의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간호 요구를 수용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도덕적 감정은 간호윤리에서 근원적이며 일차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간호에서의 인간의 신체적 감성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통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의 윤리는 인간의 신체적 감성에 기초한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를 핵심내용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과의 감성적 만남은 간호사에게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바로 타자의 요청에 대해 도덕적 응답과 책임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윤리적 계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간호상황에서의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과의 윤리적 만남을 통해 보살핌에 대한 의

무와 책임을 부여받는 간호윤리의 이론적 토대로서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I. 레비나스의 책임의 윤리

1. 몸의 감성과 타자의 얼굴

레비나스는 인간존재를 해명함에 있어서 이성적 사유와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가 되기 전에 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성에 앞서는 근원적인 것으로 인간의 신체성, 즉 감성의 의미로부터 바로 윤리적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Kim, 2002). 따라서 우선 레비나스 철학에서의 신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리고 윤리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타자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레비나스는 신체를 지닌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존재양식을 향유(jouissance)라고 칭한다. “향유란 삶의 양식이나 영양과 내용이 되는 누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변환경세계를 삶의 요소로 체험하는 것이다(Levinas, 1991). 요소적 환경세계로부터 온 음식은 나의 몸의 살과 피가 되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영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요소적 환경, 물, 공기와 바람과 흙은 나를 떠받치는 기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규정성으로 위협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적 요소에 자기를 무조건 내맡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 자기를 환경과 분리시켜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이다. 인간은 거주를 통해 위협적인 주변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동과 지적 작업을 통해 주변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래서 인간은 집을 통해 거주하고 노동을 통해 주위환경을 지배하고 소유하면서 세계로부터 타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분리하는 것이다(Kang, 1996). 향유, 거주, 노동, 소유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인간의 자이는 타자와 분리된 자아중심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Kim, 20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원적인 인간존재양식인 향유하는 신체적 존재는 타자와의 분리 그 자체이며, 이 분리하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이며, 자아에 몰입하는 것이다(Levinas, 1991). 레비나스는 이러한 자아와 타자와의 분리는 윤리적 관계의 성립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아의 내면성에 의해 자아와 타자들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아에 의한 타자의 자기화, 동화, 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를 자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동일자의 폭력성, 전체성이기 때문이다(Kim, 2001). 그러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그어지

고 자기 안으로 타자를 끌어들이는 자기 동일시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어떻게 이기적인 향유적 존재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가 맺게 되는가?

레비나스는 인간의 자아 중심적인 이기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 몸의 수용성과 민감성, 즉 몸의 감성의 작용에서 찾는다(Levinas, 1991).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성, 즉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은 타자와 어떻게 윤리적으로 관계하는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향유적 자아이지만, 타자에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해 타자에게 노출되고 보여지는 타자로부터 영향받는 감성적 존재인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의식, 이성, 인식이 추상적이라면 감성은 대상에 직접 부딪히는 직접성, 민감성, 상처받을 수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Levinas, 1974). 피와 살을 지닌 신체적 존재는 의지, 욕구, 배고픔과 결핍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타자를 위한 존재는 단지 피와 살의 존재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타자적인 것은 주체에 저항하고, 고통을 통해 내면성의 주체에 영향을 준다. 감성, 몸은 자기 안에 만족해 있는 향유이자 타자에 대한 보여짐으로써 상처 입을 가능성이자 타자를 위한 존재조건이다...”(Levinas, 1974)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성은 타자에게 보여짐으로써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처받을 수 있는’ 인간의 감성은 직접적으로 타자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성의 능동적 사유작용에 앞서서 타자로부터 오는 호소에 노출된다. ‘상처 입을 가능성’이란 곧 고통에 대한 감수성(sensibility)으로서 상처받기 쉬운 불편한 감정을 말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는 타자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고 초연할 수도, 냉담할 수도 없는 감성적 존재인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감성의 상태를 가까움 혹은 근접성(proximity)으로 표현한다.(Levinas, 1974) 타자에 대한 가까움은 타자에 대해 무심할 수 없이 타자의 어려움과 이웃의 고난을 방관할 수 없는 타자에게로 접근하는 영혼의 상태인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바로 타자의 얼굴의 현현(Epiphanly)으로서 설명한다. 타자의 윤리에서 중요한 윤리적 계기는 바로 몸의 감수성에 노출된 타자의 얼굴의 출현인 것이다. 그러면 타자의 얼굴의 출현은 과연 나의 얼굴을 향해 무엇을 말하는가? 타자의 얼굴은 그 자체가 윤리적 언어

(ethical word)이다. 즉,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의 출현, 그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호소하고 명령하는 윤리적 첫 번째 언어(first word), 근원어를 의미한다(Levinas, 1991). 그것은 바로 “너는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 와 같은 윤리적 명령과 요청의 형태를 띤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한은 나의 주도권을 무력화시키는 윤리적 저항을 띤 얼굴로 나타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눈빛으로 자신이 별거벗음과 결핍의 노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타자의 결핍과 기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자에 대한 가까움이 형성된다. 무한(타자)의 현현은 표현과 대화이다...”(Levinas, 1991)

타자의 얼굴은 나를 바라보며 호소하고 스스로를 표현한다. 타자의 얼굴이 지닌 윤리적 저항은 우리의 자유를 문제 삼으며,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타자의 얼굴은 호소하는 자아를 부정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초적 대화를 열어준다. 타자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깨닫는 것은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것, 타인을 환영하는 것, 타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행해지는 ‘말하기,(speech)란 바로 얼굴을 마주하고 타자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Levinas, 1974).

이렇듯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건네고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은 얼굴의 의미를 읽어내는 과정이다. 타자의 얼굴이 드러내는 그 정직함은 근원적으로 인간이라는 것, 즉 인간성(humanity)의 감성적 출현이다. 얼굴은 몸의 해석학 혹은 육화 된 인간의 윤리적 해석학이다(Kim, 2001). 왜냐하면 얼굴은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기는 얼굴 그 자체가 지닌 의미의 표현으로서 이미 근원적이며 본래적인 의미를 지닌다. 얼굴과 말하기는 함께 온다. 타자는 얼굴이다. 그 얼굴은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나도 그에게 말을 건넨다. 얼굴과 대화는 함께 묶여있다. 얼굴이 모든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 왜냐하면 얼굴로부터 근원적인 본래의 의미가 잉태하고 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윤리적 인간관계는 바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대화로부터 응답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듯 윤리적 인간관계는 얼굴과 함께 묶여 있는 대화를 통해 확신되며, 타자로부터 자아에게로 오는 것이다. 타자의 얼굴 그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말하기의 의미는 바로 얼굴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말하기’(speech)는 타자를 환대하는 방법이며, 그에게 응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Levinas, 1974) 즉, 마주하는 얼굴을 통해 일어나는 대화는 그 자체가 윤리적인 것이다. 얼굴을 대면하며 얼굴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대화는 타자 중심적이다. 말하기는 타자의 얼굴의 의미를 읽어내어 이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주체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기’에서의 응답과 책임에 대한 주체의 수동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비나스는 ‘말하기’ 그 자체를 인내와 고통, 별거벗음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말하기’는 타자에게 보여짐,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로부터 불리어지고 지명되는 자는 자신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기보다 타자에게 노출되어 타자의 불행에 묶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윤리적 상황을 ‘어떤 수용성보다도 더 수동적인’ 상황을 강조한다.(Levinas, 1974) 그러므로 ‘말하기’에서 보여지는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타자에게 노출시키면서 타자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되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이것은 얼굴이 지닌 윤리적 절박성과 의무를 깨닫는 것이며, 타인의 얼굴의 표정과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타인을 환영하면서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1).

2. 타자성과 책임의 윤리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 부과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게 사로잡힌 자아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타자에 대한 자아의 책임”이라고 특징짓고 있다(Levinas, 1974). 타자에게 사로잡힌 자아의 수동성(passivity)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인질(hostage)로서의 존재이다. 즉, 인질은 타자에 붙잡힌 무제한적인 책임 앞에 놓인 윤리적 주체이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인질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계 안에 동정, 연민, 용서, 가까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몸의 감성에 사로잡힌 타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타자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고,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도덕적 책임을 타자의 위치에 있는 대리(substitution)로 설명한다. 이것은 자신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까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를 대신하는 책임론을 “윤리와 무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리하게 된다. 주체는 인질의 처지를 감수

한다. 주체란 처음부터 인질이다. 대신 속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진다...”(Levinas, 2000)

레비나스에 따르면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모두 앞에 있는 모두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 책임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인용한다(Levinas, 2000). 여기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비상호적인 대리의 관계이다. 나는 늘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타자는 나의 위치에 오지 않는다. 레비나스적 책임은 나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미 행해진 어떤 행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리고 특정한 행위책임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책임이다(Byeun, 2002).

결론적으로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학에서 타자의 얼굴의 출현은 윤리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근원어이다. 타자의 얼굴의 출현으로 나의 감성은 타자에게 열리고 말하기를 통해 타자에게 응답하면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맺는다. 타자의 얼굴의 현현, 표현, 말함을 통한 응답과 도덕적 책임은 자아에게 고통스럽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추상적 이성적 합리적 자아가 아니라 몸을 지닌 감성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타인에게 노출되고 타인에 붙잡혀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피, 시간과 노력을 받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나스에게 윤리적 자아는 바로 고립된 이기적 자아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으로 타자에게로 열리며 가까이 다가가는 감성적 자아이다. 이것은 얼굴과 대면하는 그 감성적 열림, 접근, 가까움을 통해 타자의 고통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도덕적 실천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간호윤리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

지금까지 간호윤리에서 전제해야 하는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이해와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설명해 줄 수 근거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간호의 맥락에서 인간이 몸을 지닌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몸을 통해 고통과 요구를 드러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몸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표현하며 해석하기도 한다 (Benner & Wrubel, 1988).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한 현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신체적 행위를 통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주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간호사와 환자의 윤리적 차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자를 돌보는 간호 행위에서의 윤리적 차원은 바로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얼굴이 호소하는 돌봄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열린다. 특히 타자에게 열린 몸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덕적 명령은 바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책임을 저야만 한다는 당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간호사의 환자의 얼굴에 대한 주의 깊은 응시, 가까이 다가섬, 접촉, 대화 등을 통해 일어나는 신체적 감응은 바로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에 대한 도덕적 응답과 책임을 저야만 하는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타자와의 얼굴과의 만남을 계기로 형성되는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대칭적인 관계를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 교호적인 윤리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얼굴을 통해 감지되는 타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답해야만 하는 비대칭적 책임의 윤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들, 정신박약아, 특수치료를 요하는 장애인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그들이 자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성적 주체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조건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신체적 존재라고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간호의 영역에서 인간 존엄성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가 마땅히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윤리로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들 수 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Kant, 1984). 그것은 절대적인 윤리적 명령으로서 감성이 아닌 실천적 이성에 의한 합리적 추론에 호소해서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인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적 명령은 모든 인간이 실천 이성의 사유능력과 의지의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주체자라는 것을 전제한다. 칸트에 따르면 다른 모든 생명존재와 구분해서, 인간만이 실천이성과 자유의지에 근거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념을 인간성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능성으로 지닌다(Kong, 1999).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은 바로 인간은 고유한 인격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목적 그 자체라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자율권을 위임하고 삶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 특히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 신생아, 치매 환자, 중증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간호사가 이들을 간호함에 있어서 이들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이성적 사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Schnell, 2002).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가정을 지닌 칸트의 정언명령은 인간의 신체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타당한 실천이성의 도덕적 사고에 호소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간조건의 한계상황에 처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간호함에 있어서 간호사에게 직접적인 실천력을 지니게 하는 윤리적 동기는 바로 신체적 감성인 것이다. 환자를 대면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불가피한 책임의 감정에 따른 실천이 우선하는 것이지, 그들을 자율적 주체로서 대우하여야 한다는 머리 속의 도덕적 판단은 후차적인 것이다.

특히 간호윤리학자 Nortvedt(1998)은 인간의 감성(sensibility)에 기초한 레비나스의 책임의 윤리를 간호 윤리의 기초로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간호에 있어서 환자를 응시하는 것은 임상적 사실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며, 거기서 간호의 정서적 감수성은 질병의 경험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도덕적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호흡곤란의 통증을 느끼는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 그 환자를 응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고통의 표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표현을 통해 그 고통의 호소와, 간호에 대한 요구를 감지해 내는 것이다. 이때 임상적 응시(clinical gaze) 일종의 인식론적이며, 도덕적인 태도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Nortvedt(1998)에 따르면 환자의 아픔을 본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조건, 상처받을 가능성으로서 인간경험을 보는 것이며, 이때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을 통해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의식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타자의 얼굴, 필요 혹은 환자의 요구로부터 출현하는 일종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간호사는 고통받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을 자율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없다. 간호사는 환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율적 선택은 이차적인 것이다. 타자로서의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에 대한 감응에 부과되는 도덕적 명령은 일종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에

대한 감응은 간호사에게 자율권이 아니라, 일종의 구속력을 지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신체적 감응에 따른 간호상황에서의 윤리적 특성을 근거 지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 레비나스의 윤리가 적합함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윤리는 바로 타자의 얼굴의 출현을 통해 영향받는 인간의 감성의 열림을 강조한다. 그는 타자의 호소와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주체의 이성적 도덕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사로잡힌 몸으로 느끼는 감성의 수동성에 근거한 윤리적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윤리가 간호상황에서 윤리적 차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은 바로 인간의 신체성에 기초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체의 수동적 감수성에 기초하여 타자와의 얼굴의 출현을 통한 윤리적 차원의 열림인 것이다. 거기서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가까움에 다가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호소를 경청하는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이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환자와의 윤리적 관계는 환자와 의료인의 각각의 자율적 권리에 근거한 상호계약의 모델에 따른 대칭적 관계가 될 수 없다. 환자와 간호사와의 비대칭적인 관계에는 간호사의 자율적인 도덕적 자의식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환자의 삶의 조건과 고통을 대리해서 짊어지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간호사의 도덕적 감수성의 절박함이 있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얼굴의 감성적 출현을 통해서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윤리가 정초되었듯이, 간호행위에서의 윤리적 차원은 간호사의 내면의 자율적인 도덕적 자의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도덕적 감응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책임감인 것이다. 간호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헌신과 배움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헌신과 배움은 어떤 이성적 사고의 추론적 과정에 의한 선택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 감수성에 의한 몸으로 하는 행위인 것이다. 레비나스도 말했듯이 줌과 바침은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하는 몸으로 하는 행위이다(Kang, 1998). 간호의 도덕적 실천은 머릿속의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며 느끼며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간호윤리에서 전제해야 하는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간호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레비

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통해 고찰하여 보았다. 레비나스 윤리에서의 도덕적 명령은 인간의 합리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타자의 얼굴의 출현을 통해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인간의 감수성에 호소한다. 그는 타자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행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과 시선에 사로잡힌 몸의 감수성에 의한 윤리적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윤리가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을 적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자로서의 고통받는 얼굴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와 응답, 그리고 책임에 대한 사고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윤리적 근원으로서의 도덕적 명령을 보는 것이다. 보살핌의 윤리적 차원은 근원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과 마주하며, 말하기를 통한 대화와 응답, 그리고 그들의 삶의 조건과 그 고통을 대리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레비나스의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가 간호의 윤리적 차원을 설명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주체로서의 간호사의 도덕적 사고에 의한 자율성을 무시하고 외부의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된 간호사의 감성만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요구에 대한 도덕적 응답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 간호사는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에 대한 직접적인 감응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반성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에 의해 환자와 돌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비로소 간호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돌봄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가 지닌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특히 타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적 고통으로 표현하고, 타자의 불모로 잡혀 있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윤리적 주체에 대한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자를 위해 고통을 대신하는 윤리적 주체의 모습은 마치 인류의 고통을 대속한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우는 성직자의 태도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윤리적 주체의 모습은 오늘날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직업윤리의 기초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이상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비나스의 윤리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간호의 모든 윤리적 차원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윤리는 인간의 몸의 감성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인간관계의 윤리적 지평이 간호행위의 영역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를 적합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감성에 기초한

타자 중심의 시각은 얼굴을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간호윤리의 특성에 합당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Benner, P. &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Byun, S. Y. (2002). Humanismus, der Andere und das Ich, *Cholhakyongu*, 59, 215-230.
- Edward,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New York: palgrave.
- Gröschke, D. (2002). Leiblichkeit, Interpersonalität und Verantwortung-Perspektiven der Heilpaedagogik. In M.W. Schnell(Hrsg.), *Pflege und philosophie*(pp.81-108), Bern: Hans Huber.
- Kang, Y. Y. (1996). *Is tot the subject*, Seoul: Munyae.
- Kang, Y. Y. (1998). Suffering and ethics, *Seokang* 8, 3-29.
- Kant, I. (1991).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tuttgart: Reclam.
- Kim, Y. S. (2001). Levinas's ethical subject, *Cholhakyongu*, 53, 269-288.
- Kong, H. H. (1999).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Ulsan: UUP.
- Levinas, E. (2001). *Ethics and infinity*, trans. by Yang, M.S. Seoul: Dasangulbang.
- Levinas, E. (1974).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ress.
- Levinas, E. (1991). *Totality and Infinity*, trans. Lingis, A.,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Nortvedt, P.(1998). Sensitive judgement: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 of nursing ethics. *Nurs Ethics*, 5(5).
- Schnell, M. W. (2002). Leiblichkeit-Verantwortung-Gerechtigkeit-Ethik. Vier Prinzipien einer Theorie des bedürftigen Menschen, In Schnell, M. W. (Hrsg.), *Pflege und Philosophie*, Bern: Hans Huber.

-Abstract-

Key words: nursing ethics, body, sensibility, responsibility, other

Sensibility and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in nursing: Based on E. Levinas's ethics

Kong, Byung Hy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quiry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 nursing ethics according to the Levinas' ethics which had emphasis on face to fa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responsibility for the vulnerable other.

Method: First of all, for the foundation of nursing ethics, a understanding of human vulnerability was a starting point; the nurse's bodily sensibility was regarded as a basis for the possibility of the eth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n, based on Levinas's ethics, it was explained how the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calling of the suffering other could occur in nursing situation.

Result: Nursing implied the altruistic ethical dimension on the subjec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ulnerable other. A nurse as ethical subject in her sensitive passivity is affected by the suffering other and exposed to the other. A nurse herself/himself has to response to the ethical demand of suffering other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After all, based on the Levinas's ethics, the eth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face to face rel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ther.

Conclusion: In view of that, his ethical approach could be a proper theory for the explanation of the face to face relationship and altruistic feather of the nursing ethics based human bodily sensibility.

*Assistant professor,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